

예언 고전 14:1-12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예언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예언, 말씀이다. 14장 전체를 봐야 하나, 길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적인 것 몇가지를 보겠다. 결론은 예언인데, 기록된 말씀이다. 이것을 왜 알아야 하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기 때문이다. 말씀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가 말씀대로 된다. 지구가 말씀대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은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하나도 일어나는 일이 없다. 놀라운 일이다. 오후에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으로 말씀운동이라는 메시지를 볼것인데, 1부와 함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데, 이게 진짜 답이 나면 어떻게 되나? 이 사실이 개인적으로 정말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생명 걸고 말씀대로 살 것이다. 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영적인 것이 먼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이 말한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응답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은 이 근본이 들어와서 언약이 안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 힘이 많이 든다. 그런 경우, 응답이 많이 와도 세월이 흐르면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된다.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것을 할 힘도 없어서 이것도 안한다. 세상 사람들 사는데로 그대로 산다. 기도해도 힘이 별로 없다. 나도 예전에 그랬다. 그 기도도 안하면 잠이 안온다. 그기도라도 해야 평안이 오지 안그러면 평안도 유지가 안된다. 그러나 힘이 없다. 포인트가 없고 잡은 언약이 없고, 말말 하나까. 그래도 은혜로 평안을 주셨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대부분 산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니가 이것을 잡으라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니가 세상을 정복할거야. 시대를 정복하고 살릴것이니 잡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말씀에 있다. 눈이 안 열려서 그렇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눈을 열어야 한다. 오늘이 그 날이 되기 바란다.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이다. 우리는 남미 오천종족 운동을 위해서 오늘 그것을 잡고 뜻있는 분들과 함께 과테말라에 간다. 장로님 대표기도에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하다. 남미를 우리가 한두번 가는가? 이제는 감각도 별로 없다. 처음 외국에 가면 아주 흥분된다. 준비할 것이 그리 많아서 일주일 열흘도 부족하다. 이제는 옆집 가듯이 가는 느낌이다. 어떤 때는 여권까지도 놓고 갈까 싶어서 준비물을 컴퓨터에 입력해 놨다. 준비물 제 1번 여권. 중요하고 의미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쿠바에도 중요한 계획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많은 세월 훈련 받는 중에 세계 복음화 사명이 들어왔다.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중에 우리가 남미 100팀이라는 기도제목을 잡게 되었다. 이 출발을 위한 전환점인 것이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지 그냥 응답 받는 것이 아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거기 응답받으려고 울고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자존심 상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수 있다.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다 하신다. 지구 깨버릴수도 있고 거꾸로도 돌려버릴수도 있다. 이것이 신본권세 회복이다. 내가 누구냐? 그 약속의 피로 살아난, 저주에서 해방된,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 자녀인 것이다. 정복하고 승리해야 한다. 빌빌거리는 것이 아니다. 잘 안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보라. 물론 시간표가 있고 과정이 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약속되어 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 땅 끝까지 이것좀 전해달라는 것이다. 누구나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구원에 보답해야 한다. 우리가 원죄의 영

원한 지옥 저주에서 나올수 있도록 길을 완성해주셨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여섯시간동안 매달려 있으셨다. 피를 흘리며 죽을때까지 그렇게 있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저주에서 나올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 세상은 다 경멸한다. 그러나 성경에, 십자가의 도가 세상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셨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으로 잡는 예배가 되기 바란다.

1. 예언

본문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단어로 예언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이다. 2절에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을 언뜻 보면 미래를 이야기 하는 단어로 해석하는데, 조금 읽어 보면 이것은 이미 기록된 예언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예언을 말하고 있다. 4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5절에 다 방언을 말하기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기 원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6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한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으로 하면. 그런데 거기 보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 되어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는 성경말씀인데, 이런 단어들은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결국 성경을 가르치는 공부나 그런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끝까지 더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도 옛날에 어떤 공부 많이 하는 목사님이 예언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라 변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분이 말씀 말씀 하는데, 약간 율법적으로 심하게 말씀하는 분이어서인지 모르지만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지식,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계시나, 예언은 사실상 같은 단어이다. 물론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앞으로 몇 개월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러니 예언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인 단어나 모르겠지만 계시는 확실히 성경을 말하는 성경에 써 있는 단어이다. 물론 일반계시, 자연계시 이런 단어가 있다. 이것은 세상에, 꽃, 나무,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계시이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이 무슨 말이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여주는 것중에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예언을 하라는 것으로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너 성경처럼 말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미 주어진 계시를 알아야 하고, 그 때는 미래를 보고 주어진 예언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때인데 바울이 가면 잡히게 된다고 가지 말라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21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울면서 못가게 하니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고 하였다. 그래서 결과는 올라갔고 잡혔다. 예언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온다. 이 사람이 천하에 흉년이 들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에서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기록들이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런 예언에 대한 기록이 더 많다.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런 예언이라는 단어를 두고 생각할 것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보통 예언은 대개의 경우에 큰 눈으로 보면 사실은 아주 사소한 육신적인 일들이다. 사도 바울이 잡힐 것, 천하에 흉년될 것 그런 것 알고 있어도 좋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잡힐 것 알고 갔다. 사도행전 20: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잡히는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게 문제라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이런 것을 아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한번씩 생각할 것은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근본 예언이 있다. 그 근본 예언은 사사로운 모든 육신적인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창세가 3장 15절 근본 언약이다. 이 예언이 있으면 흉년 올 것 몰라도 상관 없다는 것이다. 잡혀가도 상관없고 노예로 가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큰 비가 와서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을것이라고 하였다. 예언이다. 그러나 근본 언약이 있으면 비 내려 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 때 죽어도 괜찮지만 그것을 넘어갈 언약을 준 것이다. 방주. 그러면 산다. 이것을 모르면 당황하는 것이다. 어디 내 앞날을 말해줄 사람이 없나 하고 사람 찾아 다닌다.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답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답으로 안 받았으니까. 그것을 답으로 받으면 내가 알아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사람 찾아 다니면 반드시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미 그에 대한 답을 성경에 주신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미국에 와서 초창기 사역을 할때에, 현지인들하고 영어도 안되는데 많이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쁨을 조금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 기쁨을 부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때는 말이 잘 안되니까 집에서 그 내용을 준비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을 할때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 왜 그들이 선지자가 아닌지 이야기 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뱀의 머리를 깨는 답인지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이것이 근본 질문이고, 이것이 내게 답이 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잘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다.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보다도 더 예언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근본예언이기 때문이다. 이것보다 더 큰 예언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다. 오늘 내일이 없다.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늘 오늘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 있다는 말이다. 구약은 옛날 말이 아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 말씀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어제 오늘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방언을 말해도 하나님과는 말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 초점이다. 그래서 7절에 피를 부는 것인지 거문고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말을 알아들어야 알지. 8절에는 나팔소리가 정확해야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팔소리 정해냈다. 그것이 정확해야 준비할수 있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예언이다. 옛날에 예언을 기록한 책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해서 어제 오늘 내일이 없다. 그래서 옛날 말씀 오늘 말씀 내일 말씀 다 똑같다. 그래서 아담에게 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살아역사할 말씀이다. gsklsa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전부 통틀어서 오늘이다. 완성된 말씀은 완성된 약속이다. 예언은 항상 약속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된다. 당연히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들어와야 한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다. 들어와야 한다. 그냥 예수를 믿는게 아니고 성령님이 들어와야 한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조건이다.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조건이 언약이 들어와 내게 언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다. 디모데후서 4:1-2절에 하나님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하였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다. 경책하며 권하라는 것이다. 사역자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성도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답이다. 이것이 사역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사역자는 예언가이다.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예언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진심인지 아닌지 사역자는 항상 돌아봐야 한다.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지식,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강단 말씀이 항상 그 주간에 언약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 전체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내 인생의 이정표와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한다. 아마 그 당시 고린도교회에는 방언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아마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답을 준 것이다. 한국의 한때에 한 교단에서 방언과 함께 부작용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방언이야 나오면 해야 한다. 기독교 방송계통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직도 방언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사도 바울도 방언 하지 말라는 말은 안했다. 그런데 방언학교나 연습이나 이런 것은 좀 우스운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은 신령한 것이지만 이해할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예언은 알아듣는 말로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덕을 세운다. 이 14장 전체의 결론처럼 39절에 그런즉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알아듣고 설명이 되어야 하니까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말대로 하신다. 모든 말씀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다. 그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다. 말씀이 들어오기 바란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면 승리하고 정복한다. 다 아는데 잘 안된다. 나도 그랬다. 나도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옛날과는 다르다. 이게 때가 있다.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다. 기도를 진짜로 해야 한다. 길게 하는것도 좋지만 여하튼 진짜로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메시지를 예사로 들으면 안된다. 지금 나오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을 이 시대에 맞춰서 풀어 낸 것이다. 여하튼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 때가 오게 되어 있다. 진짜 언약이 들어와서 언약되기 바란다. 그러면 달라진다. 내 안에서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 버린다. 그리고 성취된다. 말씀이 성취되면 막을 자가 없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달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예언을 하라고 하였다. 방언도 좋지만 예언을 하라. 사역자들은 특별히 답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을 전하면 된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만 받으면 된다. 아주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간단하다. 어려운 것 없다. 어렵다는 것은 뭔가 틀린 것이다. 이 주간에 이런 은혜를 받고 답이 나고 눈이 열리는 주간에 되기 바란다.